

CJ올리브영 '추석 기프트 대전' 실시

CJ올리브영이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추석 기프트 대전'을 진행한다. 명절 선물용으로 제격인 기능별 건강식품, 프리미엄 화장품, 고기능성 기초화장품 세트 등 80여 개 상품을 선별해 최대 41% 할인 판매한다. 특히 모바일 앱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인기 상품 및 선물 받는 이를 고려한 맞춤형 선물을 제안한다.



한국차 전기차 보조금 제외...형편성 논란



현대차 그룹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왼쪽)와 기아 EV6는 미국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으며 올해 상반기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2위까지 끌어올렸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사진제공 | 현대차그룹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미국차가 절반 가져갔다

(국내)

미국 전기차에 447억7000만원 지급
특히 테슬라는 442억 가까이 쓸어가
美보조금은 현지 조립 차량만 혜택
현대차, 판매량 감소 피할 수 없어
외교부 "WTO·FTA 위반 소지 있다"

테슬라, GM 등 미국산 전기차가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정부 전기차 보조금 중 절반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시행으로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올해 상반기 수입 전기 승용차에 지급한 보조금은 822억5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약 54%인 447억7000만 원이 미국산 전기차에 지급됐다. 특히 테슬라는 모델 3와 모델 Y를 앞세워 441억9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쓸어갔다.

GM의 경우 상반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차량이 81대(볼트 EUV)에 불과했지만, 신형 볼트 EV와 EUV 판매가 본격화되면 미국산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0원

미국은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고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약 524만 원) 신차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 해

2022년 상반기 미국 전기차 판매 순위	
테슬라	25만19790대
현대차그룹	3만3323대 (현대차 1만29600대, 기아 1만7723대)
포드	2만2979대
폭스바겐그룹	1만6893대
GM	7674대

※ 자료제공·한국자동차연구원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원·비지원 기업	
지원 기업	아우디, BMW,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루시드, 리비안, 닛산,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비지원 기업	현대차, 기아, 폭스바겐, 포르쉐

택을 주기로 했다.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만들어진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은 기존 '보조금 지급'을 '세액공제 혜택'으로 이름만 바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와 전기차 관련 산업의 자국 내 공급망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현대·기아차다.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에 오르는 원동력이 된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이오닉5 기본 트림의 가격이 3만

9950달러(약 5300만 원)에서 4만7450달러(약 6300만 원)로 1000만 원 가량 높아지면서 테슬라 모델3 기본형(4만6990달러)보다 더 비싸졌다.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진 장관, 미 국무장관에 문제 제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제외는 세계 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3호(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 금지)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2조 2항(한국산 제품을 미국산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따른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정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박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한국 전기차 보조금 중단이 WTO 최혜국 대우 원칙과 FTA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에 미국 정부와 즉각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 정부에 수입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지원 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해법은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같은 조치를 당장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이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미국에 2025년까지 총 105억 달러 투자 약속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화답했지만 3개월 만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에서 조립하는 전기차가 없다. 올해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기존 생산라인에 3억 달러(약 3600억 원)를 투자해 제네시스 GV70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지만 워낙 생산 물량이 적다. 미국 조지아주에 6조30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지만 2025년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최소 3년간은 전기차 판매량 감소로 인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기차 전용 공장 완공 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존 생산 라인을 변경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2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당초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었던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을 올해 안으로 당기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에는 통상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해 조기 착공되면 2024년 하반기에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아이오닉 6

현대차, '아이오닉 6' 사전계약 개시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22일부터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소비자들이 최대한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공개 행사에서 밝혔던 가격보다 300만 원 낮춘 5200만 원~6135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아이오닉 6는 6.2km/kWh의 세계 최고 수준 전기소비효율과 산업부 인증 기준 524km에 달하는 넉넉한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이상 18인치 휠, 롱레인지 2WD 기준)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이오닉 6는 53.0kWh 배터리가 장착된 스탠다드(기본형)와 77.4kWh 배터리가 탑재된 롱레인지(향속형) 두 가지 모델로 판매된다.

현대약품, 기능성 샴푸 마이녹셀 홈쇼핑 방송



현대약품은 23일 CJ온스타일에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 마이녹셀 스칼프 인텐시브 샴푸 바이 랩클(이하 마이녹셀·사진) 방송을 진행한다. 마이녹셀은 두피와 모발을

케어해 탈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샴푸다.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50만 병을 돌파했다. 현대약품은 방송에서 마이녹셀 대용량 4개와 무료 체험본 1개, 파우치 5개, 신체품 트리트먼트 1개를 묶은 슬림구성과 슬림구성 수량을 각각 두 배씩 더한 완벽더블구성을 선보인다.

제주도립타워, 꽃하르방 PB티셔츠 선보여

복합리조트 제주도립타워는 리조트 내 쇼핑몰 한 컬렉션에서 꽃하르방 티셔츠 4종을 판매한다. 리조트 내 그랜드 하얏트 제주 1층 로비에 있는 호텔의 시그니처 조형물 꽃하르방을 모티브로 한 PB 상품이다. 색상(블랙, 화이트), 크기(대, 소)에 따른 4종으로 출시되었다. 한 컬렉션 3층 기프트샵, 드림티셔츠 섹션에서만 판매한다. 꽃하르방은 5월 로비에 설치한 이래 호텔 방문 인증샷 명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국내 발병률 높은 '류마티스 관절염' 정밀한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열쇠

류마티스 관절염은 국내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수는 24만 명을 넘었다. 발병 시 손, 손목, 발, 발목 등 여러 관절에서 염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관절이 뻣뻣해지는 강직 현상, 체중 및 근육량 감소, 피로감, 무기력감, 식욕 부진, 관절 열감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단독 혈액검사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혈액검사를 병행해 진단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 전개돼야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대표적인 검사 방법은 류마티스 인자RF 검사가 있지만 단독 진단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검사가 항CCP항체 검사, C반응성 단백(CRP) 검사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엑스레이, 초음파 등 영상 진단을 통한 관절 활막 염증 체크 과정이 이뤄진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시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항류마티스약제,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생물학적제제 등 다양한 약제가 처방된다. 이외에 관절보호약제, 스테로이드 등이 병행 처방될 수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는 완치 개념보다 관절염의 조절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조기 진단 및 지속적인 치료, 환자 스스로의 올바른 생활습관 노력이 필수다.

전주류마티스관절염내과
한양김영삼내과의원 김영삼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티맵,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억 투자 유치...‘모빌리티+금융’ 시너지 확대

8.3%지분 확보...KB, 4대 주주 등극
모빌리티 보험·중고차·결제 등 협력

티맵이 국민은행을 새 주주로 맞고, '모빌리티와 금융 사업' 시너지 확대에 나선다.

티맵모빌리티는 모회사인 SK스퀘어와 협력해 KB국민은행으로부터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티맵모빌리티 지분 8.3%를 보유한 4대 주주가 됐다. 이번 투자는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형 금융사의 첫 대규모 투자로 관심을 끈다. 티맵모빌리티가 KB국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한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왼쪽)와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사진제공 | 티맵모빌리티

민은행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업가치는 총 2조2000억 원이다. 2020년 분사시점

(1조)과 비교해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티맵모빌리티는 확보한 재원을 모빌리티 사업 역량 강화 및 관련 생태계 확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개발자들을 더 공격적으로 채용해 티맵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모빌리티 보험, 중고차, 결제 등 KB금융그룹과 사업 협력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양사가 구상 중인 대표적인 서비스는 티맵 플랫폼 종사자에 특화된 소액대출이다. 대리운전·화물·발렛 등 플랫폼 전업 종사자의 플랫폼 활동 이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대리·발렛·택송 등 티맵 서비스와 연계한 보험 영역의 협력도 추진한다.

일반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도 선보인다. KB국민은행의 포인트제도, 결제 서비스 등을 티맵과 연동하고, 중고차 관련 사업 협력도 추진한다.

티맵모빌리티는 SK스퀘어의 투자 포트폴리오 계획에 맞춰 지난해 4월 국내의 사모펀드(PFF)로부터 4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 2000억 원을 추가 유치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리운전, �보드, 전기차충전, 티맵 오토, 렌터카 등 서비스의 고도화뿐 아니라, UAM(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 등 차세대 분야에서도 혁신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